

巫俗服飾의 象徴的 意味에 관한 研究(Ⅱ)
— 在日 韓國人의 宗教生活을 中心으로 —

李 子 淵

新羅大學校 衣類學科 助教授

A Study on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Shaman's Costume(Ⅱ)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igious Lif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

Ja-Yeon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illa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심방 金氏그림에 대하여
I. 序 言	2. 「中十王맞이」의 祭次와 巫服
II. 在日 韓國人 社會의 文化와 宗教狀況	IV. 巫俗服飾의 象徴的 意味
1. 在日 韓國人의 形成	1. 巫服의 象徴的 意味
2. 在日 韓國人 社會의 文化와 宗教	2. 巫具의 象徴的 意味
III. 歷史的 社會事實로서의 巫俗 祭儀와 服飾	V. 結 言
	參考文獻

Abstract

This paper makes a report of Shamans' ritual performed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socio-historical facts, and this also examines the symbolic meanings of Shamans' costum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1) At the ritual of *Jungsip-Wang Maji*, Shamans wear *Gwandae*, *Kunbok*, *Jangsam*, *Durumagi*, and *Chima-jugori*. These costumes show that their wearers are priests and gods at the same time.
- 2) The reason why *Simbang* performs the ritual in different costumes at different *Jaechas* is that each object-god needs different costumes to represent its different character.
- 3) Shamans' instruments consist of musical instruments and other instruments. Among the musical instruments are such percussions as *Buk*, *Jing*, *Janggo* and *Sulsa*. Among other

* 본 연구는 1998년도 신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instruments are *Sindo*, *Sanban* and *Yoryung*.

- 4) Shamans think that the musical instruments have magic powers to drive out minor demons and invite gods. *Sindo*, *Sanban* and *Yoryung* are thought to be the symbolic instruments representing gods' will.

I. 序 言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각기 자기의 고유한 文化를 간직하면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民族에 歸化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母國을 떠나서 生活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母國을 떠나 異國에서 生活하고 있는 자들을 在外同胞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在外同胞들은 세계 곳곳에서 生活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고, 母國을 떠날 당시의 生活風習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으며, 나아가 土着文化에 同化됨으로써 변화한 것은 무엇일까. 在外同胞들은 그 지역의 土着文化에 同化되기도 하고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母國의 生活文化를 전파하기도 할 것이다. 이들 在外同胞들의 生活文化는 民族史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歷史의 史로서나 社會文化的으로 중요한 意味를 지니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에 대한 치밀한 調查研究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日本에 거주하고 있는 在日 韓國人의 宗教生活 중, 우리민족의 生活에 至大한 影響을 끼쳐 왔고 현재도 庶民生活의 精神的인 支柱로 殘存하고 있는 巫俗을 중심으로, 巫俗祭儀의 事例를 하나의 歷史的 社會事實으로서 報告함과 동시에 여기에 나타난 巫服의 象徵的 意味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在日 韓國人 社會에 있어서의 韓國文化 및 韓民族의 정체성과 하나됨을 확인하기 위한 基礎的 資料로 活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日本 大阪市 生野區 生駒에 소재한 寶光寺에서 실시된 제주도지방의 中十王맞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진행상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의례시의 행동이나 巫舞, 巫歌, 言語 등은 일반인인 필자가 이해하고 그 意味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

문에 같은 類의 儀禮를 수 년동안 관찰한 후 정리하였다. 巫服과 巫具 등의 象徵的인 意味 등에 관하여는 각종 문헌이나 논문을 참고하면서 巫俗人 그리고 이 방면의 專門家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연구는 사마니즘의 本質的 要素인 神과의 直接交通에 깊은 관련을 맺고 役割을 하는 특수한 意味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의 文化와 社會의 올바른 認識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韓國文化의 本質을 究明하는데에도 중요한 根據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在日 韓國人 社會의 文化와 宗教狀況

1. 在日 韓國人의 形成

韓民族이 日本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4세기 경 日本으로 건너간 한국계의 사람들이 야마토 政權의 支配層을 形成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日本에 남아있는 수많은 증거들로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우리의 陶工들이 日本에 끌려가 日本 陶藝文化의 꽃을 피우게 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들의 後孫들은 이미 日本社會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들의 人구이동은 현재의 在日同胞社會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겠다. 在日同胞의 形成過程을 보면, 한일합병으로 인한 植民地化 直後인 1911년에는 2000인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후 약 10년마다 10배정도의 높은 增加趨勢를 보이다가, 1945년에는 200만인을 超過하게 되었고 이것은 당시 韓國人口의 약 1할에 달하는 수였다. 해방을 맞아 다수의 사람들이 歸國하고 처음부터 잔류하기를 희망했거나 歸國을 희망했다가 歸國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단 歸國했다가 조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갔거

1) 국립민속박물관 『중국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20, 국립민속박물관, 1977, p.3.

나 조국의 전쟁 및 사회 정치적인 不安으로 日本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여기에 合流하면서 오늘의 70만여 在日同胞 社會가 形成되었다. 在日同胞는 日本 全國 北海道에서 沖繩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大阪(약 18만 6천인), 東京都(약 7만 4천인), 兵庫縣(약 7만인), 愛知縣(약 5만 6천인), 京都府(약 4만 7천인)등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沖繩縣에 256인이 거주하고 있는 정도이다. 在日同胞의 出身地에 관해서는 경상남도(38.6%),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남도순으로 이는 在日同胞 總數의 88.9%에 해당되며, 대부분 日本에서 가까운 우리나라 南部地域의 出身者가 대다수이다²⁾.

2. 在阪 韓國人 社會의 文化와 宗教

戰前의 商工業의 중심도시인 大阪에는 많은 韓國인들이 流入하여 猪飼野(현재의 生野區)에는 1920년대부터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큰 韓國인마을이 形成되었다. 생활근란에 처한 제주도민들은 同鄕출신들에 의지하여 속속 猪飼野에 유입하여 그 인구가 1934년에는 전 제주도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50,053명에 달하기도 하였다. 1945년 일본패전후, 150만 이상의 사람이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으로 귀환하였지만,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차별과 빈곤속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본에서 삶을 영위해 갔다. 특히, 大阪市에 한정하여 보면 제주도 출신자가 53,463명으로 가장 많고 大阪시내의 生野區에서는 區內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38,713명이 韓國인으로 그 중 약 72%가 제주도 출신자이다. 이렇게 同鄕, 친족 관계, 고용관계, 시장관계, 교육관계, 그리고 종교적 관계 등을 통하여, 여기에는 농밀한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제일한국인 중, 약 80%가 일본에서 태어난 2세·3세·4세로 韓國본토 출생자는 5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또 혼인성립수의 반 이상이 일본인을 배

우자로 선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새로운 상황속에서의 韓國문화의 傳承, 민족적 아이덴티티 保持의 문제가 모색되고 있다.

종교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통계나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곤란하지만, 불교, 기독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불교는 한국 조계종의 公認寺院으로서는 生野區에 普賢寺, 京都府의 高麗寺가 있으며 信徒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기독교는 현재 한국에서와 같은 금신장추세는 보이지않고 大阪府內에서만 6개의 교회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한국 사마니즘으로서의 巫俗은 수백년동안 蔑視되고 迷信視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사회의 끈질긴 지지로 금일 일본에서도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巫俗祭儀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외, 山岳修驗, 瀧行場과 같은 일본 종교에의 참가도 볼 수 있으며, 한국불교신앙의 재생과 변용, 일본종교의 수용, 근대적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동향 등, 금후부터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영역이다³⁾.

Ⅲ. 歷史的 社會事實로서의 巫俗 祭儀와 服飾

조사기간은 1987년에서 1991까지 매년 수차례씩 조사를 하였고, 1995년 5월에 2~3일간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료는 1988년 실시된 祭儀(7월 6일~7월 11일간)이다. 祭儀는 심방⁴⁾ 金氏 그룹에 의해 행해졌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8~10시까지 실시되었다. 필자는 祭儀의 전 기간동안 참관하여 그 과정을 기록하였다. 祭儀의 의뢰자는 大阪市 生野區에 거주하는 在日 韓國人 2세인 卞씨로, 죽은 남편의 왕생극락을 위한 것이었다.

1. 심방 金氏그룹에 대하여

- 2) 秋庭裕 「在日 韓國人·朝鮮人」 『日本宗教の複合的構造と都市住民の宗教行動に關する實証的研究』 大阪大學, 1987, pp.127-128.
- 3) 飯田剛史 「十王祭」 『日本宗教の複合的構造と都市住民の宗教行動に關する實証的研究』 大阪大學, 1987.3, pp.133-134.
- 4) 무속계의를 주재하는 종교직능자를 일반적으로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은 지방이나 성별, 무당의 신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불리어지고 있다. 제주도 지방에서는 특히 남녀 무당을 모두 「심방」이라 하며, 일본 현지에서도 「심방」이라 부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따라 「심방」이라 칭하기로 한다.

금번의 中十王맞이는 제주도 출신의 심방 그룹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그룹의 리더로서 중요한 제의를 담당하는 主巫인 金萬(남, 현재 68세)氏를 비롯하여 심방 玄氏(여, 金萬의 妻), 심방 金氏(여), 그리고 악기연주자인 宋氏(여) 金氏(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심방은 役割이 分擔되어 있어 단골의 祭儀만을 擔當하게 되어있고, 祭儀를 主宰하지 않을 경우에는 演奏에 참석하기도 한다. 金氏그룹은 전원이 제주도 출신이며 심방 金氏(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인척관계이며, 이들 巫 그룹은 大阪 지역의 재일한국인 사이에서 이름이 난 그룹이다.

主巫인 金萬은 1930년생의 在日韓國人으로서 현재 大阪市 生野區에 살고 있다. 金氏의 아버지도 심방이었으나, 金氏는 심방이 되는 것을 싫어하여 청년기에는 미신타파운동의 선두에 서기도 하였다. 군복무 후 어업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실패. 그 후, 원인불명의 병이 들어 고생하자 의학, 타 종교에 의존하였으나, 병은 치유되지 않을 뿐, 더욱 더 악화되지만 하였다고 한다. 주변인들의 권유로 심방을 불러 굿을 치른 후, 병은 완치가 되었으며, 28세 때 신굿⁵⁾을 하여 심방이 되었다. 자식들이 커서 金氏에게 巫業을 그만둘 것을 강요함에 따라 어업에 종사. 다시 실패. 1962년에 일본에 밀항, 巫業에 종사. 몇 차례의 송환과 밀항을 거듭한 후, 1982년 信者들의 탄원서명으로 특별제유허가를 받았으며, 光寺와 極樂寺, 神徳院 등의 주지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가 主宰하는 굿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만둘 생각이라 한다. 현재 일본에서 제주도의 祭儀를 전승하는 두 그룹 중 金氏그룹은 그 하나에 속한다.

2. 「中十王맞이」의 祭次와 巫服

十王맞이는 가정생활에 있어 재난이나 불행의 원인이 중유세계에 떠 다니는 조상의 혼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 실시되는 祭儀로, 혼령이 十王의 심판을 받아 저 세상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模擬의인 祭儀이다. 이것은 제주도 巫俗祭儀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

지는 것으로⁶⁾, 中十王맞이는 그 중정도 규모의 祭儀를 가리키며, 初頭祭 - 佛道맞이 - 十王맞이 - 差使靈맞이 - 送神의 순으로 진행된다.

1) 初頭祭

(1) 초감제

초감제란 굿을 할 때 최초로 실시되는 祭次로 여기에서는 우주의 開闢, 日月星辰의 발생등 천지창조전설과 함께 祭場, 祭日, 굿을 하게 된 동기를 神에게 고한다.

심방은 색동저고리에 초록치마를 입고 그위에 청색 쾌자를 입은 후 홍색대를 맨다.

머리에는 홍색 머리띠를 한 후에 공작털이 장식된 전립을 쓰고 손에는 神刀와 搖鈴을 든다. 이러한 복장으로 심방은 제단앞에 서고 演奏者들은 祭壇의 오른쪽에 앉아 북과 징, 설채를 두드린다.

(2) 액풀이

액풀이란 祭場과 神이 내려오는 길, 의뢰자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액을 없애는 祭次이다. 심방은 초록저고리, 황색치마를 입고, 神刀와 搖鈴, 바람, 향로를 든다. 악기는 징, 북 설채가 사용된다.

(3) 神門열기

神門열기란 神이 祭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닫혔던 神門을 門神의 도움을 빌어 열게하는 祭次이다.

심방은 神刀와 搖鈴, 감상가를 들고, 징, 장고 설채로 격렬한 장단에 맞추어 祭場과 初神床사이를 몇번이나 왕래한다. 심방은 색동저고리, 초록치마에 청색 쾌자를 입고 홍색대를 하고, 머리에는 홍색 머리띠를 한다.

(4) 請 神

請神이란, 열린 神門으로 神들을 맞이하여 제단에 편안히 모시는 祭次이다.

神들을 모신 직후에 神이 제자리에 잘 모셔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神刀와 搖鈴으로 점을 친다. 심방은 위의 神門열기에서와 같은 복장이며,

5) 신굿이란 무당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의 하나로 入巫式을 가리킨다.

6) 張壽根 「韓國의 民間信仰」, 金花舍, 1974, p.335.

반주되는 악기는 징, 북, 설쇠이다.

(5) 초상계

초상계란, 초감제때 마치 부르지 못한 神들을 초청하는 請神儀禮이다. 심방은 장고를 치면서 請神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으로 請神儀禮가 끝나고, 모든 神들이 초청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神刀로 神意를 묻는다. 심방은 황색저고리와 청색 치마를 입는다.

(6) 出物供宴

出物供宴이란 安坐한 神들에게 공물을 권하여 소원을 비는 祭次이다. 심방의 복장은 위의 초상계 때와 같다.

(7) 初公본풀이

본풀이란 對象神의 출생에서부터 神으로서의 직능을 가질때까지의 생활내력을 노래로 부르는 것으로⁷⁾, 이 제차에서는 巫祖神 初公의 來歷神話를 부르고 그 神話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의뢰자의 소원을 빈다⁸⁾. 심방은 청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장고를 두드리면서 初公본풀이를 부른다.

(8) 二公본풀이

二公본풀이란 西天의 서역국에서 인간의 生命花를 관장하는 神인 二公의 神話를 부르면서 의뢰자의 소원을 비는 祭次이다. 심방은 황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입고 장고를 두드리면서 二公본풀이를 부른다.

2) 佛道맞이

佛道맞이가 시작되기 전에 길게 자른 흰 무명천을 한쪽은 祭場밖에 세워둔 대나무에 묶고, 다른 한쪽은 祭場안의 祭壇에 연결시킨다. 神은 이 대나무로 하강하여 흰 무명천을 통해 계단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다. 흰 무명의 천은 다리를 상징하는데, 天上界와 地上界를 연결시켜주는 길을 나타낸다고 한다⁹⁾. 불도맞이는 다음의 제순에 따

라 실시된다.

(1) 초감제

佛道맞이의 祭次는 대체로 위에서 설명한 초두제의 祭順으로 행하여지지만, 심방의 복장은 초두제의 복장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祭次의 복장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심방은 초록 치마, 색동 저고리에 청색 꿰저를 입고 홍색대를 맨 후, 그 위에 僧服의 하나인 홍색의 장삼을 입는다. 장삼은 소매가 넓고 길며 도포와 비슷한 형태이다. 머리에는 홍색 머리띠를 한다. 악기는 징과 북, 설쇠가 있으며, 巫具는 搖鈴과 神刀가 사용된다.

(2) 액풀이

악기는 징과 북 설쇠 바탕의 장단으로 시작되다가, 북과 장고의 장단으로 바뀐다. 복장은 홍색 치마, 초록 저고리며 神刀와 搖鈴이 사용된다.

(3) 神門열기

佛道神을 초청하기 위해 神門을 여는 祭次로, 심방은 오른손에 搖鈴과 神刀, 왼손에 神刀를 들고 징과 북 설쇠의 격렬한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神門이 열리도록 기원의 노래를 부른다. 심방의 복장은 홍색 머리띠에 초록 치마, 색동저고리, 청색 꿰저를 입고 그위에 홍색 장삼을 입는다.

(4) 請 神

심방은 바로 앞의 祭次와 같은 복장으로 佛道神과 日光神, 月光神, 天神을 초청하여 祭壇에 안좌시킨다. 안좌의 확인을 위해 神刀와 算盤으로 점을 친다. 악기는 징과 북, 설쇠가 사용된다.

(5) 出物供宴

심방은 장고의 가락에 맞추어 청한 神에게 공물을 권한다. 심방은 청색 치마에 황색 저고리처럼이다.

7) 玄容俊 『濟州島巫俗의 研究』, 第一 書房, 1985, p.290.

8)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5, p.127.

9) 崔吉城 『巫俗의 世界』, 正音文庫18, 正音社, 1987, p.108.

(8) 수륙침

이 祭次는 佛道神을 降臨시켜 공물을 권하면서 소원을 비는 祭次로, 佛道란 불교의 영향으로 이름이 붙여진 産神을 말하며, 심방이 僧의 복장을 하고 기원을 드리는 불교적 기원의례이다. 심방은 분홍색 치마에 황색 저고리를 입고 그위에 홍색 장삼을 입고 백색 대를 맨 복장이다. 머리에는 흰색 고깔을 쓴다. 搖鈴과 神刀를 들고 징과 북 설채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후, 장삼의 흰 띠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맨다.

(7) 길 침

이것은 神들이 來臨하는 길을 깨끗이 청소하여 神을 모시는 祭次이다. 심방은 풀을 뽑고 길을 다듬는 模擬의인 행동을 한 다음, 양 손에 감상기와 바람을 들고 하늘색 치마와 저고리에 흰 고깔을 착용한 후, 흰 천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엮고 흰 치마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겨드랑이로 묶고 춤을 춘다. 이 祭儀가 끝난 후, 다리를 상징하는 흰 무명의 천을 풀어서 불에 태운다.

3) 十王맞이

十王맞이가 시작되기 전에 뜰에 세워둔 대나무 끝에 적 청 황 백의 천으로 묶고 다른 쪽의 끝은 祭場의 천정에 엮어낸다. 神들은 대나무를 따라 下降하여 다리를 통해 祭壇까지 안착한다.

(1) 초감제

심방은 꽃무늬가 있는 분홍색 바지에 초록 대님을 맨 후, 탕전을 치고 흰색 저고리를 입고 그위에 흰색 두루마기와 자색 패자, 홍색의 관대 순으로 입는다. 여기서의 관대란 단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대 위에는 홍색대를 맨다. 머리에는 망건을 쓴 후 갓을 쓴다. 악기는 징과 북 설채가 쓰이며, 神刀, 搖鈴을 사용한다.

(2) 액풀이

심방은 황색 치마 흰색 저고리를 입는다. 손에

는 搖鈴과 神刀, 향로를 들고 祭場의 부정을 없앤 후, 神刀로 의뢰자의 몸과 머리를 찌르는 흉내를 하며 액을 제거한다. 북과 설채 징 바람의 격렬한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며 춤을 춘다.

(3) 神門열기

심방은 神刀와 搖鈴, 감상기를 들고 격렬히 춤을 추면서 神門이 열리도록 기원을 한다. 算盤과 神刀로 神門이 열렸는지를 확인한다.

심방은 초감제의 복장과 같다.

(4) 講 神

심방은 흰색 저고리, 분홍색 바지에 자색 패자를 착용한다. 最高位神인 천황상제에 이어 지무 사천대왕, 산신대왕, 명부와 인간의 병을 관장하는 神인 十王, 그리고 本郷神, 十王使者의 差使 등을 불러들인다.

本郷神을 초청할 때 심방은 황, 적, 초록색의 길이 5미터정도의 絹布를 오른 팔에 두르고 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로 교차시켜 맨다. 이때의 絹布를 「팔찌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武人이 활을 쏠 때 소매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¹⁰⁾. 손에는 神刀와 搖鈴, 감상기를 든다. 징과 북 설채의 장단과 함께 심방은 격렬한 춤과 광분한 동작을 하면서 本郷神을 청한다.

(5) 出物供宴

심방은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를 입고, 8미터 길이의 絹布로 祭場과 의뢰자의 몸과 머리를 후리쳐 액을 없애는 흉내를 낸 다음, 神들에게 供物を 권한다.

(6) 差使본풀이

심방은 差使神에게 죽은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원한다. 神刀와 搖鈴으로 그 소원이 差使神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심방은 청색 치마와 황색 저고리를 입고 장고의 반주에 맞추어 差使본풀이를 부른다.

10) 玄谷使「濟州島 巫俗의 比較研究(Ⅲ)」, 제주대 논문집 6, 1974, p.50.

4) 差使靈맞이

이 祭次는 死者靈을 十王앞에 불러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祭場에는 저옥문이라 하는 높이 40센치의 陟자 모양의 금속 막대로 된 문이 3열로 36개가 세워져 있다.

(1) 초감제

심방은 초록 치마 적색 저고리에 청색 패자를 입고 적색 띠를 맨다. 머리에는 홍색 머리 띠를 한 후, 공작 털이 달린 전립을 쓴다. 양손에는 神刀와 搖鈴을 들고 초두의 초감제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

(2) 액풀이

심방의 복장은 초록 저고리에 황색 치마를 입는다.

(3) 神門열기

2심방은 앞의 초감제와 같은 복장이며 손에는 감상기를 든다. 算盤과 神刀로 神門이 열렸는지를 확인한다.

(4) 길 침

길침이란 저옥문을 깨끗이 淨化하는 祭次이다. 심방은 문사이를 몇번이나 돌면서 길을 치우는 모의적인 동작을 한다. 심방은 앞의 祭次와 같은 복장으로 진행한다. 약기는 북과 징, 설쇄가 사용되며 巫具는 神刀와 감상기가 쓰인다.

(5) 請 神

심방은 적색 저고리, 초록 치마에 청색 패자를 입고 머리에는 홍색의 머리띠를 한 후, 공작 털이 달린 戰笠을 쓴다. 請神의 기원을 한 후, 赤牌갑라는 종이를 등 중앙에 붙이고 손에는 差使旗를 든다. 赤牌갑란 死者를 저 세상에 데리고 가기 위한 文書이다. 巫具로는 감상기와 神刀, 搖鈴, 算盤이 쓰이며 약기는 징과 북, 설쇄가 사용된다.

(6) 地獄門 열기

심방은 적색 저고리, 초록 치마에 청색 패자를 입고 적색대를 맨다. 약기는 징과 북 설쇄가 사용

되며, 神刀로 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한다.

(7) 差使본풀이

심방은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고를 두드리면서 差使본풀이를 부른다.

5) 送 神

초청된 모든 神들에게 供物을 권한 후, 징을 두드리면서 神들을 배송한다.

심방은 흰색 바지 저고리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는다. 흰 무명과 祭儀에 사용된 각종 천, 神의 이름이 쓰인 명찰, 종이 돈 등을 모두 불에 태운다.

이상으로 中十王맞이의 祭次와 巫服에 대해 살펴 보았다. 中十王맞이는 가정생활의 災厄이나 不幸의 원인이 저 세상에 가지못하고 中右世界에 떠돌아 다니는 조상이나 근처의 死靈때문이라고 판별이 났을 경우에 행해지는데, 死者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死者를 저 세상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의례이다. 十王이란 중국불교에서 移入된 神들로 아들은 열 개의 저옥을 각각 관장하고 있으며, 十王맞이는 死者들이 十王의 심판을 받아 저 세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模擬의인 儀禮가 중심이 된다. 中十王맞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형식은 綜合請神儀禮-個別儀禮-綜合送神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個別儀禮는 다시 請神-娛神-送神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神意는 三明斗라 불리는 神刀, 算盤, 搖鈴으로 점을 쳐서 알아내며, 祭儀에 초청되는 神은 옥황상제를 비롯하여 產神, 龍神, 門神에 이르기까지 무속신앙에서 취급되는 모든 神들과 특히 弘法大師나 聖德太子, 生駒山神과 같은 일본의 神도 초청된다. 여러 祭次의 과정은 심방에 의해 주재되었으며, 징과 북, 장고, 설쇄의 강렬한 반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러한 祭次 중간에 제주도 神들의 神話인 본풀이라는 장대한 巫歌를 심방이 경쾌한 리듬으로 장고를 치면서 부른다. 또한 中十王맞이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죽은 祖上の 혼이 심방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의뢰자와 대화를 하는 공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IV. 巫俗服飾의 象徴的 意味

1. 巫服의 象徴的 意味

以上, 中十王맞이의 巫服으로는 께자, 장삼, 두루마기, 관대, 갓, 전립, 머리띠, 망건, 고깔, 그리고 치마와 저고리, 바지가 착용되었으며, 심방은 祭次마다 각각 다른 巫服을 착용하고 祭儀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巫服은 祭儀에서 어떤 意味로 착용되었는가.

우선, 祭儀의 구성을 보면, 중십왕맞이는 초두제와 佛道맞이, 十王맞이, 差使靈맞이, 送神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祭儀는 神을 祭場에 불러들이기 위해 제반 준비를 하는 祭次인 초감제, 액풀이, 神門열기, 請神의 과정이 있으며, 請神 후 神들에게 供物을 권유하는 出物供養, 그리고 초청된 神들에게 娛神 후 소원을 빌고 공수하는 과정, 그리고 送神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각 祭次에서의 심방의 행위를 분석하여 보면, 「神들을 초청하기 위한 준비의 행위, 神들을 돌려보내는 행위」와 「공수 또는 歌舞를 통하여 神의 행동을 연출하는 행위」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즉, 佛道맞이에서의 「수륙침과 길침, 十王맞이에서의 청신의 祭次, 그리고 差使靈맞이의 길침과 請神에서의 심방의 행위」와 그외의 「初頭祭와 佛道맞이, 十王맞이, 差使靈맞이에서의 초감제, 액풀이, 神門열기, 請神, 出物供養 그리고 각종 본풀이와 送神에서의 심방의 행위」와는 구별된다. 前者는 심방이 神의 立場으로 취하는 행위라 할 수 있겠고, 後者는 심방이 司祭者의 立場으로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祭儀에서의 심방의 役割은 神 또는 司祭者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이 심방의 役割이 구별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역할과 巫服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논의의 이해를 위해 祭次에 따른 巫服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군복차림, 장삼차림, 관대차림, 평복차림, 두루마기차림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이러한 복식은 조선시대의 복식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군복차림(그림 1)이란 평복인 치마 저고리위에 께자를 입고 전립을 쓴 차림으로 초두제와 差使靈맞이에서 착용되었다. 장삼차림(그림 2)이란 불도



<그림 1> 군복차림



<그림 2> 장삼차림

맞이에서 사용되었는데, 치마 저고리에 께자와 장삼을 겹쳐 입고 머리에는 홍색 머리띠를 맨 차림이다. 평복차림이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차림으로 각종 본풀이나 초감제 액풀이 出物供養시에



<그림 3> 관대차림

착용되었다. 관대차림(그림 3)이란 바지 저고리 차림에 두루마기, 껌자, 관대 순으로 겹쳐입고 머리에는 망건에 갓을 쓴 차림을 말한다. 그리고 두루마기차림이란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와 갓을 쓴 차림이다. 이와같이 巫服은 각 祭儀의 종류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심방의 역할과 관련한 巫服의 종류를 보면, 심방이 司祭者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위의 5가지 차림으로 분장하고 있으나, 神의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사제자의 차림에 부속장식물이 첨가된 복장인 특수복차림으로 분장을 하고 있다. 특수복차림의 경우를 보면, 불도 맞이에 초청되는 神인 産神은 흰 고깔에 장삼을 입고 흰 띠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에 걸침으로써 産神(그림 4)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평상복차림에 흰 고깔을 쓰고, 흰 천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엮은 후 그 위에 흰 치미를 두른 모습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걸립神(그림 5)을 나타내고 있다. 差使靈맞이의 경우에는 심방이 군복차림에 赤裨帛을 등에 붙이고 差使旗를 들고 춤을 추면서 祭儀를 진행한다(그림 6). 赤裨帛은 韓紙를 접어서 만든 것으로 저 세상의 差



<그림 4> 産神의 복장



<그림 5> 걸립神의 복장

使가 閻라대왕의 命에 따라 이 세상의 인간을 데



<그림 8> 差使神의 복장

리고 갈 때 가지고 가는 文書를 象徵化한 것이며, 差使旗는 90센티정도의 대나무 막대에 흰 종이를 사람의 형상으로 오려서 만든 깃발로 저 세상의 差使를 상징하는 것이다. 差使靈맞이의 경우, 심방이 赤裨旨와 差使旗를 들고 歌舞하는 것은 死者를 데리고 가는 差使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差使본풀이의 내용 중 差使의 복장에 대하여 묘사된 대목을 보면 - 얼굴을 씻은 후, 저 세상에 갈 때 입고 갈 옷으로 갈아 입었다. 藍紡紗紬 바지에 白紡紗紬 저고리, 紫芳明紬 행전, 白綾 비선과 靑신을 신고 韓山苧麻 두루마기에 藍水禾紬 赤裨자를 입고, 앞에는 勇字 뒤에는 正字를 써넣은 쪽전립을 썼는데, 위에는 象毛를 붙이고 密花貝纒을 드리우고 管長牌를 등에 지고 紅絲 끈은 허리에 달고, 赤裨旨는 끈으로 묶어 달고 분앞에서 먼 저 세상에 갈 준비는 다 되었다 - 라고 묘사되어 있는데¹¹⁾, 이것은 差使가 된 姜林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 당시 敎使(제주도의 행정관장)의 命으로 嶺라대왕을 잡으러 갈 때의 복장을 묘사한 것이다. 姜林은 嶺라대왕을 잡아 온 용감무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差使로 추대된 듯하며, 姜林이 差使가 되어서도 이 본풀이의 내용과 같은 차림을 하여 지금까지도 軍服이 差使의 복장으로 착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本郷神을 초청할 때에는 심방은 軍服차림으로 분장하는데, 이 경우 심방은 적색 청색 황색 비단을 오른 팔에 감고 神刀와 搖鈴, 감상기를 손에 들고 격렬한 춤을 춘다. 소매에 두른 비단은 옛날 武人이 활을 쏠 때, 넓은 소매가 방해되지 않도록 감는 것이라고 하는데, 本郷神이 이것을 소매에 감은 이유는 원래 本郷神은 매우 난폭한 성격의 神이기 때문에 난폭하고 용감한 武官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本郷神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 듯하다. 감상기는 神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나무 막대에 韓紙 한장을 단 것이다. 이와 같이 軍服차림에 赤裨旨나 絹布, 감상기 등과 같은 부속장식물로 분장한 심방은 처음부터 이러한 복장으로 祭場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심방의 모습은 바로 神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의 행위는 바로 神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심방은 司祭者로서의 복장을 하고 司祭者로서의 道具를 손에 들고 司祭者役을 함과 동시에 神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부착하고 神의 신분에 필요한 道具를 손에 들고 神의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지방의 무복이 중부지방의 巫服과는 달리 神과 司祭者의 복장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부속장식품만으로 구별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심방 김씨는 섬에 사는 제주도의 神들은 한국본토보다 까다로운 성격의 神이기 때문에 神을 초청할 때의 심방은 의복을 정히 갖추어 초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祭儀에서의 의복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였는데¹²⁾, 제주도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이 巫俗信仰의 지역적 특이성을 형성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祭儀에서 나타나는 심방의 복장은 司祭者와 神으로서의 복장이라는 두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巫服은 각 祭次

11) 玄容俊『濟州島의 民話』, 大日本繪畫, 1978, pp.53-54.

12) 심방 金萬實은 -제주도는 옛부터 이튿난 유배지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나 관직자들의 신이 많이 있는데, 이 신들이 극락에 가지 못하고 중유세계에 떠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하게 되므로 본토의 신들보다 더 까다롭다고 한다.

에 등장하는 司祭者나 神의 모습을 나타내는 物의 意味로 사용되었고, 심방은 巫服을 착용함으로써 司祭者 또는 神으로 現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방이 각 祭次마다 다른 차림으로 祭儀를 진행하는 이유는, 差使와 本郷神의 복장에서와 같이 祭次에 등장하는 對象神의 성격을 고려한 복식이 착용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¹³, 여기에 나타나는 무복은 조선시대의 복식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巫具의 象徴의 意味

巫具로는 징과 북, 장고, 설채와 같은 打樂器로 된 巫樂器와, 神刀, 算盤, 搖鈴 등이 사용되었다.

우선 巫樂器를 보면, 징은 銅으로 된 원형의 單面鼓형식의 악기로, 지름은 약 33센치 길이는 10센치정도의 것이다. 징에는 끈이 달려있어 이것을 왼손으로 들고, 북채를 잡은 오른손으로 연주를 하게 되어있으나, 祭儀의 시간이 길고, 징의 연주시간이 길며 무겁기 때문에 천정에 줄을 매달아 놓고 두드리도록 장치되어 있다.

북은 지름 33센티 정도의 원형으로 된 兩面鼓의 형식이며, 심방이 祭儀를 행할 때 연주자는 祭壇의 오른쪽에 앉아서 반주를 한다.

설채는 銅으로 만들어진 지름이 약 20센치, 길이 약 7센치정도의 원형의 單面鼓 형식으로 된 것으로,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악기이다. 이것을 엮어놓고 북 채 2개로 반주를 하며, 주로 징, 북과 함께 사용한다. 장고는 鼓面의 지름이 약 30센치되는 兩面鼓형식의 것으로, 오른쪽은 가는 대로 된 북채로 두드리며, 왼쪽은 왼손 바닥으로 연주를 한다. 각종 본풀이나 출몰공연시에 심방이 제단 앞에 앉아서 巫歌를 부를 때 장고를 친다.

바탕은 銅으로 만들어진 심벌같은 것으로, 두 개가 한 조로 구성되어 있어 한손에 한 개씩 들고 연주하도록 되어있고 頂部에는 술이 달려있다. 이것은 佛道맞이와 같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祭儀에 주로 사용되며, 이것을 던져서 떨어지는 상태로써 神의 뜻을 感知하는 무점구로도 사용되었

다. 즉 두 개가 모두 위로 향해 있으면 最吉의 상태를 意味하고, 한 개만 위로 향해 있을 경우는 半吉半凶의 意味이며, 두 개 모두가 엮어져 있으면 불길함을 意味한다.

祭儀에는 이와같은 巫樂器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巫樂器는 심방이 祭儀를 진행할 때 흥을 돋구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악기의 소리가 神들을 감동시켜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고 惡鬼를 물리치는 靈力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神刀는 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2개가 한쌍으로 되어 있다. 칼의 길이는 25센치내외, 칼날은 13센치정도이며, 자루 끝에는 韓紙를 가늘게 잘라 만든 긴 다발이 달려있다. 칼날의 측면에는 S자와 같은 점선이 새겨져있으며, 자루는 계단모양으로 층이 나 있다. 神刀가 巫具로 사용된 유래는 初公본풀이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僧의 아들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자 과거시험에 낙방한 양반 자식들의 횡포로 삼형제의 어머니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아버지와 상의를 하니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형제 모두가 심방이 되어야한다고 하면서 天, 地, 門이 새겨진 天文을 주었다. 그리고 소가죽과 말가죽 膏桐가지로 북과 장고를 만들고, 모래로 算盤과 神刀를 만들어 14일간이나 악기를 치면서 歌舞를 하니 잠귀있던 獄門이 저절로 풀어져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으며 삼형제는 神刀를 휘두르면서 양반자식들의 목을 빼어버렸다는 내용으로¹⁴,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神刀가 巫具로써 사용되게 되었다고 한다. 神刀는 搖鈴과 감상기와 함께 사용하여 神들을 초청하고, 또 神刀로 환자의 전신을 찌르는 흉내의 춤을 추면서 잠귀를 쫓아내는 靈力이 있는 칼인 동시에 神意를 탐지하는 신통력이 있는 칼이기도 하다. 神刀로 짐을 치는 행위는 심방의 기본적인 행위로 神意를 탐지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행하여진다. 즉, 神들의 降臨與否, 神에게 기원한 사항이 神이 들어주었는가의 與否, 잠귀가 되치되었는가의 與否 등 祭儀의 결과 모든 것을 神刀로 짐을 쳐서 探知한

13) 玄容俊, 「濟州島 巫俗의 比較研究(III)」, 제주대 논문집 6, 1974, p.52.

14) 拙稿, 「무속복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I)」, 服飾 제32호, 韓國服飾學會誌, 1997.5, pp.213-224.

15) 赤松智城, 秋葉降, 「朝鮮巫俗의 研究」, 上卷, 大阪屋 書房, 1937, pp.388-414.

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심방이 祭儀의 도중에 神刀를 던져서 땅에 떨어진 칼의 방향과 모양으로 神의 意思를 探知하여 吉凶을 判斷한다. 땅에 떨어진 칼의 모양은 작도다리, 칼선다리, 애상다리, 동진다리, 왼쪽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6가지로 분류되는데, 작도다리란 가장 불길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칼날 두 개가 하늘을 향하면서 서로 교차된 상태를 가르키며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意味를 나타낸다. 칼선다리는 칼날 두개가 하늘로 향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앞의 작도다리와 같이 죽음의 差使가 사람을 데리러 온 다든가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애상다리란 칼날이 안쪽으로 서로 마주보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병자의 경우 병이 더욱 더 악화되는 등의 걱정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意味를 상징한다. 동진다리란 두 칼날이 서로 바깥으로 향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별 등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궤이다. 왼쪽다리란 칼날이 모두 왼쪽으로 향해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어느정도 길조를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리란 칼날이 모두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를 말하며 最吉을 상징하는 것으로, 神들이 晝히 祭場에 降臨하여 소원을 들어준다는가 病者가 完治를 한다는 궤이다. 즉, 칼날의 방향으로 神의 意思를 표현하고 있는데, 칼날이 위로 향해 있거나 마주 보고 있을 경우에는 불길함을 상징하며, 한 쪽으로 향해 있을 경우에는 吉兆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칼날이 인체에 접할 때의 작용과 결과에 의한 해석으로 유감주술심리와 같은 思考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算盤은 天文, 算蓋, 算台로 구성된 巫具이다. 天文이란 銅으로 만들어진 직경 6센치가량의 엽전과 유사한 것으로 가운데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고 표면에는 天地日月 天文日月이라는 文字가 새겨져 있으며, 天體를 상징한다. 算蓋이란 직경 4센치내외의 깊이 1센치가량의 銅으로 만들어진 잔이다. 算台는 직경 11센치내외의 깊이 1센치가량의 접시와 유사한 것으로, 이 위에 天文 2개와 算蓋 2개를 놓아서 占具로써 사용한다. 이러한 算盤이

巫具로 사용되게 된 유래는 전술한 神刀의 경우와 같이 初公본풀이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유래는 양반의 자식들 때문에 과거시험에 합격한 것이 취소된 삼형제가 아버지인 小師僧에게 하소연을 하니 아버지는 여기에 올 때 본 것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天을 다음에는 地를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門을 보았습니다라고 삼형제가 대답을 하니 너희들이 여기에 올 때 보았던 것과 같이 天地를 따르고 家家戶戶 문을 돌아다니면서 즉, 巫義를 하며 살도록 하여라고 하여 天文이라는 文字가 새겨진 天文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算盤은 어머니가 삼형제를 낳았을 때, 목욕을 시키던 용기였다고 하는데, 天文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를 象徵하고, 算盤은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자를 象徵한다고 한다¹⁶⁾. 算盤도 神刀와 마찬가지로 심방이 巫儀의 도중에 이것을 던져서 그 던져진 상태로써 神의 뜻을 알아내는 무점구로써 사용되었다. 던져진 상태는 9종류로 분류되는데, 吉兆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天文 두 개와 算蓋 한 개만 위로 향해 있을 경우나 天文 두 개와 算蓋 한 개가 떨어져 있을 경우이다. 불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算蓋 두 개만이 떨어져 있거나 天文한개만 위로 향해 있을 경우, 天文과 算蓋 4개 모두 떨어져 있을 경우이다. 그리고 半吉半凶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4개 모두 위로 향해 있을 경우, 算蓋 두 개만 위로 향할 경우, 天文 한 개만 위로 향해 있을 경우 그리고 算蓋과 天文 한개씩만 위로 향해 있을 경우이다. 이와같이 算盤의 해석은 매우 복잡하나 이것에 대한 상징체계에 관한 것은 지면관계상 다음의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搖鈴은 손에 들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銅으로 된 방울로, 방울의 지름은 약 6센치 정도이며 방울의 頂部에는 45센치정도의 청색, 주홍색, 적색, 녹색의 천이 달려있다. 搖鈴의 소리는 神門을 열고 神을 祭場에 불러들이는 靈力이 있는 巫具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搖鈴의 사용도 위에 기술한 巫具와 마찬가지로 초공본풀이의 내용-기원을 드러 놓은 딸을 혼자 집에 남겨 두게된 부모가 딸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걸어 잠궜었는데, 이 때 황금산에 있는 스님이 이 집에 와서 搖鈴을 세 번

16) 玄容俊, 『濟州島巫俗의 研究』, 第一 書房, 1985, pp.462-463.

흔드나 굳게 잠겨져 있던 방문이 저절로 열려 딸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사용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神刀, 算盤, 搖鈴과 같은 巫占具는 神意를 탐지하는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써, 심방은 이러한 巫占具가 나타내는 것을 판독하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무점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심방의 수호신 즉 보조령의 상경물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巫占具에는 보조령의 영력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령이 심방이 탐지하려는 神意를 巫占具의 방향이나 위치 등으로 심방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守護神의 도움으로 제의를 진행한다는 점은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의 샤만이 守護靈의 補助로 神靈과 직접교섭하면서 祭儀를 행하는 방법과 같은 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¹⁷⁾, 이것은 제주도의 무속이 북부시베리아 계통의 샤마니즘과 같은 계통의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문화의 원류를 구명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言

본 연구는 재일한국인 사회에 있어서 巫俗祭儀의 사례를 하나의 역사적 사회사실로서 報告함과 동시에 여기에 나타난 巫俗服飾의 象徵的 意味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中十王맞이는 死者들이 十王의 심판을 받아 저세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模範的인 儀禮가 중심이 되는 祭儀로, 祭儀의 기본형식은 綜合請神儀禮-個別儀禮-綜合送神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個別儀禮는 다시 請神-娛神-送神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심방은 각 祭次마다 日常服과는 다른 巫服을 着用하고 있었다.

中十王맞이의 巫服으로는 冠帶차림, 軍服차림, 長衫차림, 두루마기차림, 平服차림이 着用되었으며, 이러한 服裝은 司祭者와 神으로서의 服裝이라는 두가지 性格을 內包하고 있었다. 즉 심방이 司祭者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의

5가지 차림으로 扮裝하고 있으나, 神의 立場을 취할 경우에는 司祭者의 차림에 附屬裝飾物이 添加된 特殊服차림으로 扮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祭儀에서의 巫服은 각 祭次에 등장하는 司祭者나 神의 모습을 나타내는 現物의 意味로 사용되었고, 심방은 巫服을 착용함으로써 司祭者 또는 神으로 現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심방이 각 祭次마다 다른 복장으로 祭儀를 진행하는 이유는, 祭次에 등장하는 對象神의 性格에 적합한 복장이 착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巫具는 북과 장, 장고, 실쇄와 같은 打樂器로 된 巫樂器와, 神刀, 算盤, 搖鈴 등이 사용되었는데, 巫樂器는 祭儀時 雜鬼를 물리치거나 神들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靈力이 있는 道具로써 사용되었으며, 神刀, 算盤, 搖鈴은 神의 意志를 象徵的인 意味로 나타내 주는 巫占具의 意味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1. Eliade, M., *Shamanism-Archaic Techniques of Ecstasy*, Bollingen Foundation, 1964.
2. Leach, E., *Cultur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3. Reinhard, J., "Shamanism and Spirit Possession-The Definition Problem-", *Spirit Possession in the Nepal Himalayas*, Aris and Phillips Ltd., 1976.
4. Firth, R., "Shamanism", *A Dictionary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 1964.
5. 佐佐木宏幹, 「南アジアのシャーマニズムにおける脱魂と憑靈」, 「日本のシャーマニズムとその周辺」, 日本放送出版會, 1984.
6. 佐佐木宏幹, 「シャーマニズム의人類學」, 弘文堂, 1984.
7. 關西外國語大學國際文化研究所編, 「シャーマニズムとは何か」, 春秋社, 1983.
8. 赤松智城, 秋葉降, 「朝鮮巫俗의研究(上), (下)」, 大阪屋號書店, 1937/1938.
9. 秋庭裕, 「在日韓國人·朝鮮人」, 「日本宗教の

17) Nioradze, D.G., 李弘植譯, 「시베리아 諸民族의 原始宗教」, 新丘文化史, 1976, p.115.

- 複合的構造と都市住民の宗教行動に關する
實的研究』, 大阪大學, 1987.
10. 玄容駿, 『濟州島巫俗の研究』, 第一書房, 1987.
 11. 玄容俊, 『濟州島の民話』, 大日本繪畫, 1978.
 12. 玄容俊, 『濟州島 巫俗의 比較研究(Ⅲ)』, 제주대 논문집 6, 1974.
 13. 崔吉城, 『巫俗의 世界』, 正音文庫18, 正音社, 1987.
 14. 崔吉城, 『韓國의 샤-마니즘』, 弘文堂, 1984.
 15. 任哲宰, 『韓國巫俗研究序說Ⅱ』, 『亞細亞女性研究』淑明女大, 1971.
 16. 金泰坤, 『韓國巫俗研究』, 集文堂, 1985.
 17. 柳東植, 『韓國巫教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5.
 18. 李弘植譯, 『시베리아 諸民族의 原始宗教』, 新丘文化社, 1976.
 19. 張鶴根, 『韓國의 民間信仰』, 金花舍, 1974.